

봄눈 (なごり雪)

화가가 꿈인 20살의 영숙은 대학입학 후 같은 과 선배 준철과 사랑에 빠지고 아이를 가지는 바람에 중퇴하게 된다.

영숙은 서양화가인 남편을 대신하여 딸 미경을 키우며 닥치는 대로 일을 한다.

준철은 일이 잘 풀리지 않자 매일 영숙을 구타하게 되고 20년간 매를 맞던 영숙은 우발적으로 준철을 죽이게 된다.

스스로 경찰서로 찾아간 영숙은 정상참작을 받아 5년형을 선고 받아 복역하게 된다.

통계 프로그램을 개발해 대박이 난 민혁은 회사를 매각해 큰 돈을 벌게 된다. 사랑하는 제희와 결혼을 앞두고 행복한 나날을 벌이던 어느 날 제희는 문지마 살인으로 사망하게 되고 민혁은 충격에 빠지게 된다.

세상을 원망하며 집에서 나가지 않고 매일 술 만 마시던 민혁은 제희와 같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을 돕기 위해 재단 설립과 화장품 회사를 창업한다. 하지만 고통은 해결 되지 않아 회사는 전문가에게 일임하고 집에서 은둔생활을 이어간다.

치과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는 영숙의 딸 미경은 출소를 앞 둔 엄마를 찾아가는데 영숙은 미안하다면서 출소하는 날 오지 말아달라고 당부한다. 출소를 한 영숙은 공중전화를 찾고 딸 미경에게 전화를 걸어 자리를 잡으면 연락하겠다고 말을 하고는 카페에 들어가 가방 속에서 남은 돈을 확인한다. 100만원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는 방을 구할 수가 없어 무작정 걷다가 고시원을 발견하고 일단 한 달 치 월세를 내고 일자리를 구하기로 한다.

수감 중 그렇게 먹고 싶었던 삼겹살을 먹기 위해 식당을 찾은 영숙은 혼자 삼겹살을 시켜 소주와 마시는 데 옆자리의 남자들이 추근거리자 남편 죽이고 출소 후 먹는 삼겹살이라고 말하고 남자들에게 경고한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고민하는 영숙 앞에 주인인 병희가 다가와 위스키를 한 잔 건넨다. 그리고는 마른오징어를 구워서 둘은 이야기를 하며 먹게 되고 영숙은 병희의 식당에서 일을 하기로 한다.

시간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는 제희로 인해 매일 술로 나날을 보내던 민혁은 더 이상

똑같은 생활을 반복 할 수 없어 대리운전을 하기로 한다. 술을 마시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서인데 처음 손님이 여자 손님이었는데 죽은 제희와 너무나 닮아 손님을 내려주고는 집으로 돌아와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한다.

전날 너무 많이 마신 술 때문에 해장을 하고 싶어 민혁은 밖으로 나간다. 점심시간이 지나 식당에 들어가 해장국을 주문하고 영숙은 민혁에게 해장국을 가져다 주고는 병희에게 딸을 좀 만나고 오겠다고 하고 나간다.

영숙은 딸 미경을 만나고 미경은 상견례에 대해 이야기 하고 영숙은 2~3달 후에 하면 좋겠다고 하고 미경은 그렇게 하겠다고 한다.

아무것도 없는 영숙, 그리고 남편을 죽인 살인전과자라는 운명 때문에 거리를 걸으며 울던 영숙은 황급히 식당으로 가게 되는데 민혁이 아직 있는 것을 보고 놀란다.

병희는 일이 있어 먼저 간다고 영숙에게 식당을 부탁하고 민혁은 말 없이 계속 술을 마신다. 민혁이 소주를 더 시키자 영숙은 사과를 깎아서 같이 주는데 사과를 본 민혁은 영숙을 보는데...